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11호  
2009.2.20 ~ 2009.2.26

## I. Analysis Overview ..... 1

---

## II. 국내 동향 ..... 4

---

1. 산업정책 및 제도 ..... 4
2. 음악업계 동향 ..... 5
3. 소비자동향 ..... 7
4. 언론동향 ..... 12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 13

## III. 해외 동향 ..... 16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6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 19

#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 1

##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 4

**1-1.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상대 헌법소원** .....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1-2. 경기도, '한류우드'를 '한류월드(HallyuWorld)'로 변경** ..... 4

명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류'라는 전통성과 '월드'라는 세계화의 의미를 담은 '한류월드'로 개명할 방침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 5

**2-1. 대형기획사 SM, 싸이더스 연합 꽃미남 그룹 24/7** ..... 5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노민우, 싸이더스HQ 소속 현우, 젊은제작자연대 소속 이장우 3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 24/7이 지난 25일 뮤직비디오 시사회를 통해 활동 시작

**2-2. 디지털온넷, JYP엔터테인먼트 지분 5.62% 인수** ..... 5

디지털온넷이 JYP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온넷은 24일 JYP엔터 지분 5.62%(13만4000주)를 인수

**2-3. 일본 업프론트와 엠넷미디어 공동 프로젝트** ..... 6

'하로 프로젝트 한국 오디션'은 일본 최고의 여성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소속사 업프론트(UPFRONT)와 한국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 엠넷미디어가 함께 3월9일 개최

**2-4. 기타 단신 등** ..... 6

- 원더걸스와 SK텔레콤, 그 복잡한 관계
- 출판·음반·광고 석권 빅뱅 '트리플 대박!'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 7

**3-1. 소녀시대, 카라 걸 그룹 강세** ..... 7

신보 음반들이 발매 2주차에 들어서면서 판매 추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트에 진입한지 2~3달이 된 소녀시대와 카라의 음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새삼스럽게 걸 그룹의 강세가 체감되었다.

**3-2. 신보 음원 차트 장악 초읽기**..... 10  
 많은 인기를 누렸던 <꽃보다 남자>의 음악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빈자리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왁스, FT아일랜드 등의 신곡이 빠르게 메우고 있었다. 또한 후속곡 활동에 돌입한 카라의 빠른 상승세가 특징적이었다.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2

**4-1. KTF뮤직, 음악 플랫폼 사업 강화한다**..... 12  
 KTF뮤직은 2008년도 매출이 33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6%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히는 한편, 음악 플랫폼 사업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언론은 23일자 보도를 통해 이를 전했다.

**4-2. 가수 세븐, 공식사이트 개설로 美 활동 본격화**..... 12  
 미국 음악시장에 진출한 국내 스타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아와 더불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드러난 가수 '세븐'이 드디어 공식 사이트 개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 했다.

**4-3. 주요 단신**..... 13  
 -상반기 음반시장, SM vs 전(前) SM '접전'  
 -가수들, 왜 태국인가  
 -서태지, 3월 공연 25분만에 12000석 매진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13

**5-1. 시네마테크 부산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13  
 시네마테크 부산은 감동적인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 개최

**5-2. [입찰공고]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4  
 저작권 서비스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

**5-3.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 입찰 공고**..... 14  
 "한국 유일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방송사용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방송 사용음악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업무

**5-4. 청소년저작권 교실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15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Ⅲ. 해 외 동 향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16

##### 1-1. Spotify, iPhone app을 누를 강자로 부상..... 16

Spotify가 Symbian60을 개발한 디렉터를 고용하고,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동통신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iPhone을 누를 강자로 부상 중.

##### 1-2. 아일랜드 ISP, Eircom이 맨섬의 요구 수용..... 16

아일랜드 ISP, Eircom이 맨섬의 요구에 따라 접속 불가능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승낙.

##### 1-3. 이동 통신 음원 수입 증가 예상..... 17

새로운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음원 수입이 14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

##### 1-4. EMI가 MP3.com 등 검색 엔진들을 고소..... 17

EMI가 음원을 검색해서 재생할 수 있는 사이트의 개발자들을 사이트 로딩 제공 혐의로 고소.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불만을 토로.

##### 1-5. 영국, 불법음원다운로드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 발표..... 17

ISP회사인 Tiscal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 4명 중 3명 이상은 음원로드가 불법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6. 주요 단신..... 18

-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합병에 대한 논란 여전해
- Apple, iTunes Psaa 출시
- Universal Music이 다섯 개의 무료 음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19

##### 2-1. VOS 와 MC 몽, 일본 콘서트 상황..... 19

지난 21일 일본 도쿄 시부야 씨씨레몬홀에서 열린 V.O.S-MC몽 빅2 콘서트'가 일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 얻어,

##### 2-2. 신화 출신 앤디, 대만에서 팬미팅 예정..... 19

오는 3월 29일, 신인 그룹 '점퍼'의 런칭과 함께 2집 정규 음반 준비에 한창인 앤디가 처음으로 대만에서 라이브 공연을 겸한 팬미팅 개최예정

## Ⅱ. 국내 동향

### 1. 산업정책 및 제도

#### 1-1.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상대 헌법소원

언론은 25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에 대한 고소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시했다고 알렸다.

음저협 측은 스타벅스가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매장 음악사용에 따른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신청했고, 저작권 침해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 할 수사기관이 불명확한 이유로 수사를 보류한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검찰 측은 이미 스타벅스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불충분한 이유뿐만 아니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에 대한 음저협 측의 수사 재기 신청도 거부한바 있어 헌법소원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매장 음악서비스에 대한 음저협 측의 권한과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 대형 레스토랑 혹은 커피숍 등의 매장에서는 음악이 빠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매장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헌법소원의 결과가 주목됨은 물론, 매장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 [관련기사]

음저협 “스타벅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공권력 남용” [전자신문 2009.02.25]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상대 헌법소원 아시아투데이 [2009.02.25]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상대 헌법소원 연합뉴스 [2009.02.25] 외

#### 1-2. 경기도, '한류우드'의 명칭을 '한류월드(HallyuWorld)'로 변경

경기도가 '한류우드'의 명칭을 '한류월드(HallyuWorld)'로 변경한다.

23일 한류월드 사업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 동안 한류우드라는 이름으로 2조6천890억 원을 투입,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천756㎡를 3구역으로 나눠 2012년까지 한류문화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한류우드'라는 이름이 미국의 '할리우드(Hollywood)'를 패러디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한류'라는 전통성과 '월드'라는 세계화의 의미를 담은 '한류월드'로 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후반부터 대장금, 겨울연가 등으로 동아시아권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은 최근 들어 다소 위축되긴 하였지만, "한류월드" 브랜드의 탄생과 더불어 2012년 한류월드가 완공되면 국내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한류문화의 산업화, 세계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인 한류월드의 재탄생을 통하여 한류월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만들어 갈 것이며 한류월드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 한류우드, '한류월드' 브랜드로 재탄생, YTN, 2009-02-27
- 경기2청 '한류월드' 브랜드 디자인 확정, 매일경제, 2009-02-23
- 경기도 '한류우드', '한류월드'브랜드로 재탄생, 경인방송, 2009-02-23

## 2. 음악업계 동향

### 2-1. 대형기획사 SM, 싸이더스 연합 꽃미남 그룹 24/7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노민우, 싸이더스HQ 소속 현우, 젊은제작자연대 소속 이장우 3명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 24/7이 지난 25일 뮤직비디오 시사회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

24/7은 세군데 기획사가 서로의 윈윈전략으로 그룹을 결성하여, 홍보 및 성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있었던 시도와는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음악 산업의 위축 속에 기획사간 연합은 현재의 산업 환경을 극복하면서, 참여하는 세군데 기획사 모두에게 기회비용 및 역량을 집중시킨 수 있다는 강점과 함께, 내부경쟁에 따른 공동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치중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형기획사 간 제휴를 통해, 신인그룹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획사간 연합이 예견될 수 있다.

**[관련기사]**

- 기획사 연합 그룹 '24/7', 불황 음반시장 대안 제시할까? [이데일리 2009.02.25]
- 꽃미남 그룹 24/7 '관심 집중' SM-싸이더스 등 대형기획사 뭉쳤다! [뉴스엔 2009.02.26]
- 외모·연기·노래 삼위일체 '24/7' 탄생 [세계일보 2009.02.25] 외 10개

### 2-2. 디지털온넷, JYP엔터테인먼트 지분 5.62% 인수

디지털온넷이 JYP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온넷은 24일 JYP엔터 지분 5.62%(13만4000주)를 인수하는 대신 자사주 23만9285주(1.46%)를 맞교환한다.

디지털온넷 관계자는 "디지털온넷의 합병사인 아이넷스쿨은 지난해 6월 JYP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러닝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에듀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새로운 교육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JYP엔터 지분을 인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진공시) [금융감독원 2009.02.24]  
 디지털온넷, JYP엔터테인먼트 지분 5.62% 인수 [아시아경제 2009.02.25]  
 디지털온넷 JYP엔터테인먼트 지분 사들였다 [한국경제 2009.02.24] 외 다수

## 2-3. 일본 업프론트와 엠넷미디어 공동기획 '하로 프로젝트 한국 오디션'

'하로 프로젝트 한국 오디션'은 일본 최고의 여성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소속사 업프론트(UPFRONT)와 한국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 엠넷미디어가 함께 3월9일 개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최초의 기획 오디션이다.

'하로 프로젝트'란 업프론트 소속의 모든 여성 멤버들을 칭하는 이름으로 이 '하로 프로젝트' 안에 모닝구 무스메, 베리즈 코보, 큐트 등의 유닛이 형성되어 있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한국 멤버는 '하로 프로젝트'로서 철저한 일본식 트레이닝을 거쳐 일본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이번 한국 오디션 개최 발표회에는 하로 프로젝트 소속 그룹 리더 뿐 아니라 모닝구 무스메부터 모든 유닛 그룹들을 담당한 업프론트(UPFRONT) 최고 프로듀서 층쿠도 함께 참석해 오디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日 소녀시대 '베리즈 코보'·'큐트' 한국 온다 [이데일리 2009.02.26]  
 日연예기획사, 스타감 한국소녀 물색 오디션 [뉴시스 2009.02.26]  
 日 아이돌 베리즈 코보·큐트, '한국 멤버 찾아요~' [한국재경신문 2009.02.26] 외

## 2-4. 기타 단신 등

### ○ 원더걸스와 SK텔레콤, 그 복잡한 관계

국내 음악시장이 대기업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 얘기다. 이제는 대기업의 수직통합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게 정설이다

[관련기사]

원더걸스와 SK텔레콤, 그 복잡한 관계 [헤럴드 생생뉴스 2009.02.25]

○ 출판·음반·광고 석권 빅뱅 '트리플 대박!'

25만부 돌파... 2집 앨범 22만장 질주... 상반기 4개 CF 추가 '총 10개' 남성 그룹 빅뱅이 역사적인 '트리플 더블' 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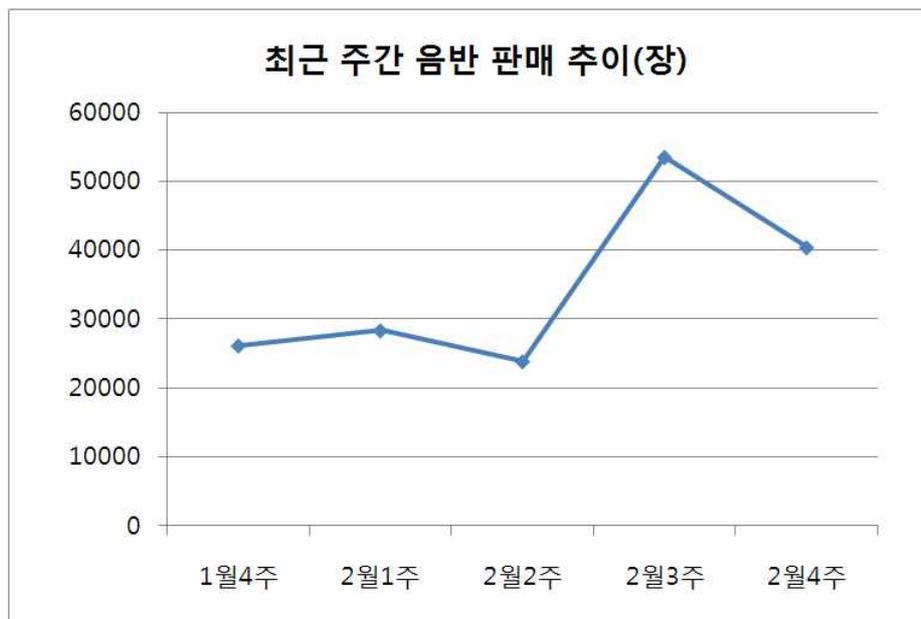
[관련기사]

출판·음반·광고 석권 빅뱅 '트리플 대박!' [한국일보 2009.02.26]

### 3. 소비자 동향

#### 3-1. 음반동향 : 소녀시대, 카라 걸 그룹 강세

2월 4주(2월 19일 ~ 2월 25일) 음반동향은 지난주 대거 발매되었던 신보 음반들이 발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에 비해 전체 음반 판매량이 약 만 장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4만 장을 웃돌면서 비교적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19일 - 2월 25일)

금주 음반동향은 신보 음반들의 발매 첫 주였던 지난주보다는 음반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동시에 상위권 음반들이 고른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차트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신보 음반들의 강세 속에서 유독 소녀시대, 카라 등 걸 그룹의 음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컴백하여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녀시대는

활발한 방송 출연 및 공연 활동 덕분에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음반 판매량이 시기적으로 일시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금주 역시 지난주에 비해 음반 판매량이 약 두 배 가량 상승하는 추이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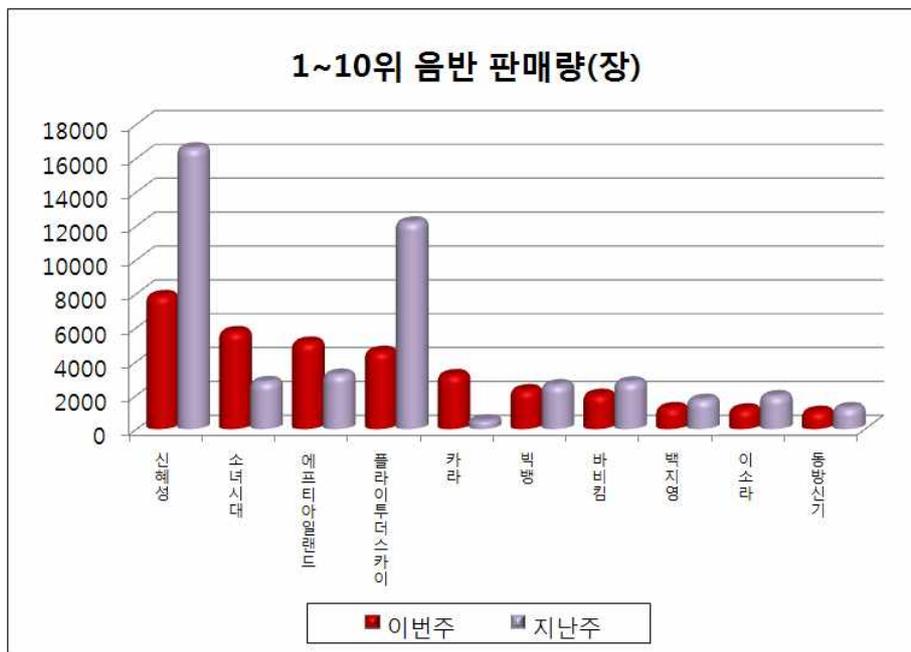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	신혜성 3집 side2 / Keep Leaves	예당	가요	7870	16,591	2009-02-16
2	▲2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5737	2,794	2009-01-07
3	-	에프티 아일랜드 미니앨범 / Jump Up	도레미	가요	5116	3,226	2009-02-17
4	▼2	플라이 투 더 스카이 8집 / Decennium	로엔	가요	4576	12,217	2008-02-10
5	▲17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3199	516	2008-12-04
6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2,308	2,605	2008-11-05
7	▼2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2,038	2,767	2009-01-12
8	-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1,255	1,741	2008-11-14
9	▼2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1174	1957	2008-12-17
10	▼1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039	1255	2008-09-26
11	-	지선 1집 / 언어...집으로 돌아오다	엠넷	가요	877	958	2009-02-03
12	▲1	리오 케이코아 2집 / 검은띠	포니캐년	가요	715	904	2008-02-12
13	진입	이진성 미니앨범 / Letter	도레미	가요	688	0	2009-02-19
14	▲49	샤이니 1집 Repack / Amigo	포이보스	가요	634	100	2008-10-29
15	▼3	린 5집 / Let Go, Let In, It's A New Day	비타민	가요	607	931	2008-01-13
16	▼6	화요비 미니앨범 / This Is Love	로엔	가요	553	1174	2009-02-06
17	▼1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526	634	2008-09-30
18	▲1	소녀시대 1집 Repack / Baby Baby	에스엠	가요	499	553	2008-03-13
19	▲7	빅뱅 1집 / Big Bang Vol.1	엠넷	가요	492	435	2006-12-22
20	▲37	2PM / Hottest Time Of The Day	로엔	가요	472	100	2008-09-05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2월 19일 - 2월 25일)

지난 연말 미니앨범 <Pretty Girl>을 발매하고 약 3달 정도 활동한 카라의 경우 발매 당시에는 음반 판매량 쪽에서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다. 하지만 후속곡 <허니>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차트 하위권에서 맴돌던 음반 판매량이 발매 3달 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카라는 지난주에 비해 6배 오른 3000장 가량의 음반을 판매하였고 20위권에 있던 순위 역시 5위로 올라섰다. 이번 주 음반 차트 상위권 순위를 살펴보면 신혜성,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의 신보 음반들이 여전히 최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지난주 만 장을 훌쩍 넘겼던 음반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 같이 최상위권 음반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소녀시대와 카라의 음반판매량은 2달 이상 차트 내에 있었던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반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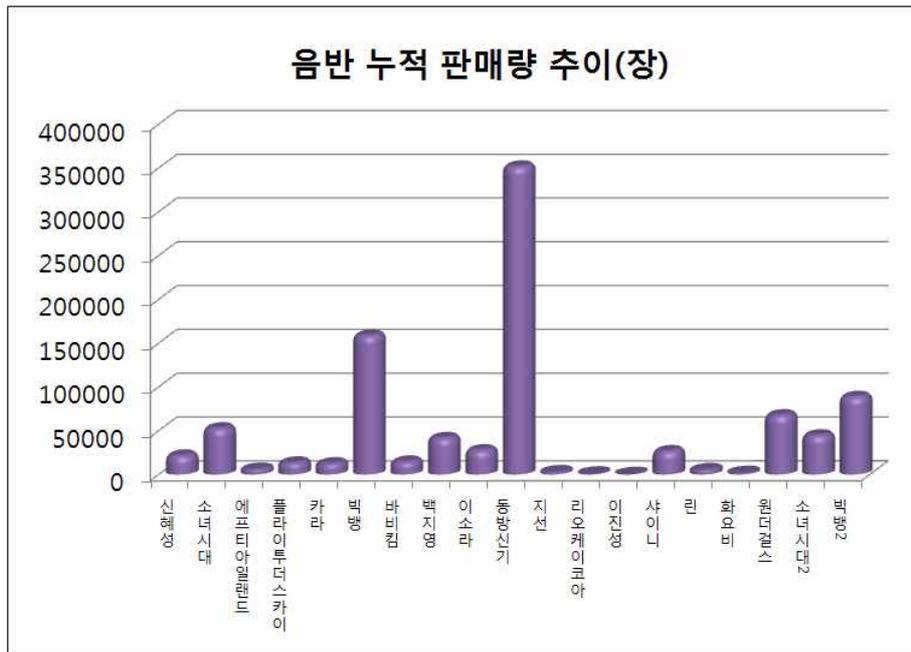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2월 19일 - 2월 25일)

10위권 밖의 음반들의 경우 지난주보다 하락의 낙폭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수록 상위권 음반 판매량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누적 판매량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동방신기, 빅뱅의 앨범이 여전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른 음반들과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의 집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2월 4주의 음반동향 차트는 신보 음반들이 발매 2주차에 들어서면서 판매 추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트에 진입한지 2~3달이 된 소녀시대와 카라의 음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새삼스럽게 걸 그룹의 강세가 체감되는 한 주였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2/21일)

### 3-2. 음원동향 : 신보 음원 차트 장악 초읽기

2월 4주의 음원동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소녀시대와 왁스가 3대 1의 비율로 차트 1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왁스의 신곡이 여러 사이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매체에서 패러디나 콘텐츠 소재로 소녀시대의 <Gee>를 활용하고 있어 음원에서의 소녀시대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급부상하여 강세를 보였던 왁스, 화요비 등의 신곡의 선전과 더불어 이번 주에 새로 공개된 플라이트 투 더 스카이의 두 번째 신곡 <구속>, FT아일랜드의 신곡 <나쁜 여자야> 등이 진입 첫 주에 상위권 순위로 안착하였다. 플라이트 투 더 스카이의 경우 새로운 음반 발매의 홍보에 있어 순차적인 음원 공개를 진행하면서 음반판매와 함께 단일 음원의 순차적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차트의 상위권 순위의 특징으로는 그 동안 식을 줄 모르던 인기를 끌었던 <꽃보다 남자>의 O. S. T <내 머리가 나빠서>와 빅뱅 승리의 솔로곡 <Strong Baby>의 순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순위 변동의 기미가 시작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후속곡 <허니>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카라의 빠른 상승세가 대비되었다.

중하위권 순위에서는 음반 발매와 동시에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혜성의 신곡이 순위권으로 진입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보통은 음원 선공개 후 음반을 발매하는 것이 요즘 음반 프로모션의 패턴이지만 신혜성의 경우 음반 발매 후 음원을 공개함으로써 음원 차트로의 진입이 늦은 양상을 보였다. 음원 공개 이후 음반을 발매한 플라이트 투 더 스카이가 음원 순위 상위권에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순위	박스 2/12 ~ 2/18	엠넷 2/16 ~ 2/22	도시락 2/16 ~ 2/22	멜론 2/15 ~ 2/21
1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2	Fly To The Sky / 구속	카라 / 허니	카라 / 허니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3	카라 / 허니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화요비 / 반쪽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4	화요비 / 반쪽	Fly To The Sky / 구속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김경록 / 이전 남이야
5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화요비 / 반쪽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화요비 / 반쪽
6	소녀시대 / Gee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린 / 사랑 다 거짓말
7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티 / 떠나지마
8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애프터스쿨 / AH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9	별 / 드라마를 보면	보이스원 / 못한 내 사랑	티맥스 / 파라다이스	카라 / 허니
10	티맥스 / 파라다이스	티맥스 / 파라다이스	Fly To The Sky / 구속	애프터스쿨 / AH
11	KCM / 멀리있기	썸데이 / 알고있나요	티 / 떠나지마	Fly To The Sky / 구속
12	대성 / 대박이야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별 / 드라마를 보면	왁스 / 전화 한 번 못하니
13	신혜성 / 왜 전화했어	김경록 / 이전 남이야	썸데이 / 알고있나요	케이윌 / 러브119
14	이수근 / 갈 때까지 가보자	애프터스쿨 / AH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카라 / Pretty Girl
15	백지영 / 입술을 주고	신혜성 / 왜 전화했어	김경록 / 이전 남이야	티맥스 / 파라다이스
16	점퍼 / Yes	바비킴 / 사랑 그놈	바비킴 / 사랑 그놈	바비킴 / 사랑 그놈
17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티 / 떠나지마	린 / 사랑 다 거짓말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18	썸데이 / 알고있나요	린 / 사랑 다 거짓말	Fly To The Sky / 가버려 너	럼블피쉬 / 비와 당신
19	쥬얼리S / 데이트	브랜뉴데이 / 살만해	대성 / 대박이야	빅뱅 / 붉은 노을
20	바비킴 / 사랑 그놈	이승철 /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샤이니 / Stand By Me	FT아일랜드 / 나쁜 여자야

2월 들어 신보 음원이 대거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가장 민감한 곳이 박스였고 이에 반해 멜론의 경우 신보 음원들의 순위권 진입이 어려워 보였다. 엠넷과 도시락의 경우 소녀시대와 카라가 쌍벽을 이루면서 비슷한 패턴의 순위 양상을 보였다.

2월 4주의 음원동향은 기존의 많은 인기를 누렸던 <꽃보다 남자>의 음악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빈자리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왁스, FT아일랜드 등이 빠르게 메우고 있었다. 또한 후속곡 활동에 돌입한 카라의 빠른 상승세도 금주 차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 언론 동향

### 4-1. KTF뮤직, 음악 플랫폼 사업 강화한다

KTF뮤직은 2008년도 매출이 33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6%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히는 한편, 음악 플랫폼 사업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은 23일자 보도를 통해 이를 전했다.

KTF뮤직은 유무선 음악포털 '도시락'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플랫폼 사업의 강화라는 목표는 부실 계열사의 정리에 우선하여, '도시락' 관련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도를 통해 밝혀진 KT-KTF의 합병 승인은 KTF뮤직 측의 사업 확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KTF뮤직은 '도시락'이 기존의 음악포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IPTV, 인터넷전화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방식의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음악 포털의 수익 창출에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 [관련기사]

KTF뮤직, 음악 플랫폼사업 강화 [BBS뉴스 2009-02-23]  
 KTF뮤직 "음악 플랫폼 사업 강화" [연합뉴스 2009-02-23]  
 KTF뮤직, 지난해 매출 337억원..26% 성장 [파이낸셜뉴스 2009-02-23]  
 KT그룹주, KT-KTF 합병 승인 소식에 `강세` [매일경제 2009-02-26]

### 4-2. 가수 세븐, 공식사이트 개설로 美 활동 본격화

미국 음악시장에 진출한 국내 스타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아와 더불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드러난 가수 '세븐'이 드디어 공식 사이트 개설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 했다.

언론의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븐은 같은 날 미국 공식 웹사이트의 개설을 시작으로 첫 싱글곡인 '걸스(Girls)'의 티저영상과 뮤직비디오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디지털싱글의 발매를 앞두고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놓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븐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높은 미국 음악시장의 진입장벽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시장에 대한 계획적인 공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세븐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본토의 유명 프로듀서들을 영입하여 음악 작업을 함께했다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 2년여의 준비기간과 금전적인 투자가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세븐 美활동 본격개시, "아시아의 하티스트 싱어!" [스타뉴스 2009-02-26]  
 세븐, 25일 美 공식사이트 오픈...활동준비 완료 [서울신문 2009-02-25]  
 세븐, 미국 공식 사이트 25일 전격 오픈 [OSEN 2009-02-25]  
 세븐, 美 공식 사이트 25일 전격 오픈 [매일경제 2009-02-25]

**4-3. 주요 단신**

○ **상반기 음반시장, SM vs 전(前) SM '접전'**

2009년 상반기 음반시장이 쏠쏠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음반판매차트의 1, 2위를 다투는 그룹 세 팀이 모두 한 소속사의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련기사]**

상반기 음반시장, SM vs 전(前) SM '접전' [마이데일리 2009-02-24]

○ **가수들, 왜 태국인가**

최근 가요계에는 새로운 한류 시장으로 떠오른 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M타운 라이브 08 인 방콕' 공연에는 4만 여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으며 원더걸스는 오는 28일 현지 첫 단독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수들, 왜 태국인가 [스타뉴스 2009-02-26]

○ **서태지, 3월 공연 25분만에 12000석 매진**

서태지컴퍼니는 "25일 티켓 오픈을 시작한 2009 서태지 싱글II 발매 기념 공연 '웜홀(WORMHOLE)'이 25분 만에 매진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서태지, 3월 공연 25분 만에 12000석 매진 [아시아경제 2009-02-26]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시네마테크 부산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최**

시네마테크 부산은 감동적인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존 레논 컨피덴셜', '샤인 어 라이트', '로큰롤 인생', '부에 노스아이레스 탱고카페', '원스' 등 총 5편의 음악 다큐멘터리와 독립 음악영화가 상영된다.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1시30분부터 매일 5차례 상영한다.

문의 ☎051-742-5377

**[관련사이트]**

시네마테크부산 <http://cinema.piff.org/>

**5-2. [입찰공고]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저작권 서비스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주관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 1). 사업명 :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2). 입찰 및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3호)
- 3).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위원회가 개최하는 입찰 설명회 참가 업체
- 4). 제출기한 : 2009. 3. 10(화) 17:00
- 5). 입찰장소 : 저작권위원회 정보화추진팀
-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정보화추진팀(02-2669-9955 ~ 7)

**[관련사이트]**

[입찰공고]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저작권위원회 2009/02/26]

**5-3.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 입찰 공고**

- 1). 사업명
  - o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사업
- 2). 사업 목적
  - o “한국 유일의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방송사용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방송 사용음악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업무.
  - o 통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o 분배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D/B맵핑 시스템 마련
- 3). 추진배경
  - o 방송 사용음악에 대한 일반인 및 저작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업무와 대외적인 공신력을 지닐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증가
  - o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Database와 방송 모니터링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저작(권)자 및 일반인에 대한 만족도 제고
  - o 업무처리 속도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D/B 맵핑 시스템 필요
  - o 방송 사용음악에 대한 통계시스템 등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신속한

민원 대처시스템 요구 증대

- 4. 사업 기간
  - 2009년 4월 1일 부터 2011년 3월 31일 까지(2年)
- 5. 세부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 19(목)
  - 제안서 접수 기간 : 2. 19(목)~3월 5일(목)
  - 1차 서류 심사 : 3. 10(화)
  - 프리젠테이션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3. 11(수)

**[관련사이트]**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 입찰 공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02/19]

**5-4. 청소년저작권 교실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 목 적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저작권 퀴즈대회
- 진행방법
  -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 청소년저작권교실 사이트 (<http://1318.copyright.or.kr>)와 연계 하여 퀴즈 대회 진행
  - 매달 3문제의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자 추첨을 통한 음악이용권 증정
- 진행기간 : 2009년 3월 2일(월)~2009년 11월 30일(월), (9개월간)
- 참가방법 : 청소년저작권교실 회원가입 후 이벤트 참가
- 당첨자 발표 : 매월 초 이벤트 사이트를 통해 당첨자 발표
  - 당첨자수 : 총 4,500명(매월 500명씩 9개월간)
  - 당첨방법 : 이벤트 사이트 내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저작권위원회

**[관련사이트]**

청소년저작권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Ⅲ. 해외 동향

###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 1-1. Spotify, iPhone을 누를 강자로 부상

인터넷 기반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tify가 iPhone 애플리케이션을 누를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Spotify는 현재 대부분의 음원 회사들과 계약은 물론, 스마트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도 체결했다. 반면 TechCrunch의 보고에 따르면 iPhone의 스트리밍 서비스 버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TechCrunch는 Spotify가 이동통신의 활로를 열기 위해 Symbian60을 개발한 디렉터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동통신 영역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echCrunch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Spotify의 iPhone버전은 초기에는 가격을 지불한 몇몇 프리미엄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iPhone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만의 재생 목록과 완벽한 카탈로그를 제공받고 그 재생 목록을 iPhone에 저장한다면,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 [관련기사]

Spotify On iPhone Could Kill Apple's iTunes, ITProPortal, 2009-02-24

#### 1-2. 아일랜드 ISP, Eircom이 맨섬의 요구 수용

아일랜드 ISP, Eircom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맨섬의 요구를 승낙했다. 아일랜드 음반 협회는 이에 따라 The Pirate Bay가 포함된 접근 불가능한 사이트 목록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단은 만약 사용자가 아일랜드가 아닌 다른 접근 경로를 이용한다면 쉽게 해결된다는 문제가 있다.

\* 맨 섬(Isle of Man, 맨어: Ellan Vannin)은 영국과 아일랜드 해 중간에 있는 영국 왕실령 섬이다. 수도는 더글라스이며 맨어와 영어가 공용어이다.

\* The Pirate Bay : 스웨덴의 파일공유 사이트로 22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세계에서 제일 큰 사이트다. 현재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 중에 있다.

#### [관련기사]

Irish ISP agrees to music industry demands to selectively block access to Web sites, CrunchGear, 2009-02-23

### 1-3. 이동 통신 음원 수입 증가 예상

Juniper Research의 새로운 예측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음원 수입이 146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 기반을 둔 리서치 기업인 Juniper Research는 이동통신 음원 수입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많이 찾아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물들은 핸드폰의 저장 용량 증가, 적은 데이터 통신 비용들 덕분에 현재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은 주요 음원 회사들이 이동통신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었고 따라서 이동 통신 음원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 [관련기사]

Mobile Music Revenue To Reach \$14.6 Billion, Mediapost.com, 2009-02-23

### 1-4. EMI가 MP3.com 등 검색 엔진들을 고소

EMI가 MP3.com을 비롯하여, Favtape 웹사이트의 개발자들을 사이트 로딩 제공 혐의로 고소했다. 2008년 1월 Warner Music이 음원을 검색해서 재생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Seeqpod를 고소한 적이 있지만 EMI의 경우는 그 개발자만 개인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앞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MP3.com의 개발자인 Mike Robertson은 현재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EMI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항변은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이슈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파일 공유가 아니라 단지 음원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Seeqpod의 사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된 것이다.

하지만 EMI가 Robertson을 고소한 이유는 단순히 사이트 검색 허용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EMI는 고소 이유에 대해 MP3.com이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체 사이트 로딩 기술이 그것들을 MP3Tunes라는 프로그램에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이드로딩(Sideload) :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 케이블이나 WiFi, Bluetooth 등 기타 방법으로 휴대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

#### [관련기사]

EMI Suing More Music Sites For Offering 'Playable Search', Washington Post, 2009-02-25

### 1-5. 영국, 불법음원다운로드 사용자들에 대한 연구 발표

ISP회사인 Tiscali는 조사 결과에서 온라인 P2P 사용자의 거의 절반(46%)이 BitTorrent나 Limewire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 4명 중 3명 이상은 자신들의 음원로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그 중 절반은 음원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불법 다운로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 다운로드의 주된 원인이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Tiscali의 미디어 서비스 부장인 Neal McCleave는 음악 회사들이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 처벌에 대한 설문에서는, 법적 처벌 조치에 대해 오직 6%의 응답자들만 벌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2%는 ISP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3%는 ISP가 서비스를 차단해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중 대다수인 83%는 어떤 형태로든, CD나 레코드 혹은 디지털 형태로 음악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평균 8-9개월에 10파운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팬들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찾는 수단이나 사려고 했던 음악을 찾는 수단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15%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은 불법다운로드를 계속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돈을 내기 싫기 때문이라고 밝혀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Illegal music downloaders undeterred by music industry threats, Brand Republic, 2009-02-24

### 1-6. 주요단신

#### ○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합병에 대한 논란 여전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합병에 관한 독점 반대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회사는 합병 이후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합병을 통해 외국 회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티켓 가격 상승과 아티스트들의 선택의 폭 제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합병이 티켓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원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Live Nation, Ticketmaster: Merger can revive music industry , MarketWatch, 2009-02-24

#### ○ Apple, iTunes Pass 출시

애플이 자사의 대중적인 iTunes music store에서 iTunes Pass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 iTunes Pass의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원을 무제한다운 받을 수 있는 자유 이용권 구매가 가능하다. 기간은 15주이며 팬들은 뮤직 비디오와 리믹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받을 수 있고 사용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콘텐츠도 있다. 음원 정액제에서 사용자는 요금을 지불해야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iTunes Pass를 통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운받은 콘텐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Apple, EMI unveil iTunes Pass, USA Today, 2009-02-24

**○ Universal Music이 다섯 개의 무료 음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2007년 iTunes Store를 겨냥한 음원 서비스 회사인 Total Music을 출시했던 Universal Music Group(이하 UMG)은 Total Music 폐쇄이후 디지털 음원 사업을 넓히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 UMG는 자회사인 Interscope Records를 통해 다섯 개의 무료 음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Interscope Records에 소속된 아티스트를 볼 수 있으며, RSS리더를 이용하여 비디오를 보고, 팬들끼리 대화를 하며 콘서트 등급을 매길 수 있다.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iTunes App Store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RSS는 XML에 기반한 문서 표준으로,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 관리자는 RSS 형식으로 웹 사이트 내용을 보여주고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다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Universal taps iPhone App Store for tunes sales, Register, 2009-02-23

##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 2-1. VOS 와 MC 몽, 일본 콘서트 성황

가수 MC몽이 'V.O.S-MC몽 빅2 콘서트'에서 일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 시부야 씨씨레몬홀에서 'V.O.S-MC몽 빅2 콘서트'를 열었다.

MC몽 관계자는 'V.O.S-MC몽 빅2 콘서트' 현장 분위기에 대해 "MC몽의 등장과 함께 1시간 정도 펼쳐진 공연 동안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을 즐겼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MC몽, 日공연 성황리 개최..新한류 되나, 스타뉴스, 2009-02-24

VOS, 日 MC몽과 라이브 무대로 팬심 공략 아시아경제 2009-02-21

日 첫 콘서트 VOS '뜨거운 환대' 스포츠칸, 2009-02-22

### 2-2. 신화 출신 앤디, 대만에서 팬미팅 예정

신화의 멤버 앤디는 최근 본인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신인 그룹 '점퍼'의 런칭과 함께 2집 정규 음반 준비에 한창이며, 또한 대만에서 첫 라이브 공연을 겸한 팬미팅을 3월 29일 오후 7시 대만 국제회의 센터(TICC)에서 개최한다.

앤디의 대만 방문은 2000년 신화 3집 프로모션 이후 9년 만이다.

2006년 이후 버라이어티와 뮤지컬, 솔로 가수로 개인 활동을 시작한 앤디는 일본 뿐 아니라 이미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만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회원수만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 [관련기사]

앤디, 대만 봄나들이...팬 3만명 만난다 스포츠동아, 2009-02-24

앤디, 3월 29일 대만 첫 단독 팬미팅, 매일경제, 2009-02-24

앤디 3월 대만 첫 단독콘서트 겸 팬미팅 개최 중앙일보, 2009-02-24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http://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